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5 월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인류가 어제보다 오늘이 또한 오늘보다 내일이 보다 나아지려면 어떻게 자손들을 키우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과학문명은 날로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은 날로 편리하여지지만 사람들의 문제 자체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교화 또는 후진양성 또는 자녀양육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분명한 대답을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경의와 신뢰를 더해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엡 6:4에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와 같다.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상황이 다양하겠으나 근본 요점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치 않는데 있다고 본다.

비록 나이는 어리고 신체는 유약하며 생각은 미숙하지만, 저들 나름대로의 주견이 있고 꿈이 있다. 저들의 입장으로 내려서서 생각해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서만 계시지 않고 사람과 죄인의 단계까지 낮추시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말이다.

보다 적극적 권고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다.

양육의 두 측면 즉 육신의 양육과 정신 즉 속사람의 양육의 두 요소가 결비되어야 하며, 이 세대가 육신적 외형적으로 치우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러한 풍조를 경계하면서 속사람의 계발에 힘을 써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후진과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음 몇가지 지침을 제시해 본다.

● 좋은 일에 습관화하게 한다.

특히 일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해와 근면을 배우고 발전과 생산의 보람을 배우며 건강을 얻고 인식의 고마움도 배운다.

● 모범을 보이라.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먼저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두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 훈계하라.

제사장 엘리의 가정의 실패는 훈계를 바로 하지 않은 데 있다. 성경의 원리에 따른 적극적 훈계가 권위와 사랑으로 제시되어야 자녀들은 안전한 길로 가게된다. 자녀양육에서 자유방임은 금물이다.

적어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녀양육에 성공하면서 믿음의 자녀들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1권 제5호 통권110호

1983년 5월호 차례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5월호

○권두언/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주 간 · 2
○이달의 말씀/부모님께 효도합시다	김창인 · 4
□ 특집 I / 성경에 나타난 가정관	윤영탁 · 6
□ 특집 II / 모범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소개	한영철 · 10
우리가정 소개	김정태 · 12
□ 이사야서 강해⑧	김창인 · 13
□ 특별연재② / 새성전 이사에 즈음하여	최 환 · 17
□ 교사일기	이성은 · 21
□ 이달의 시/순교자	안명수 · 21
□ 크리스찬의 카운슬링/옴의 친구들	정인선 · 22
□ 나의 이웃/거듭난 자의 모습	안유향 · 24
□ 신앙 간증/나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박상영 · 25
□ 매스컴 전도/매스컴 전도의 발전을 위한 모색	노경모 · 27

생각해 봅시다	16	마땅히 행할 길을	
신간안내.....	23	아이에게 가르치라	20
그루터기.....	29	선교사 · 선교지 소식	30
교회소식.....	32	이달의 교우동정	33
5월의 행사 · 편집후기.....	34		

「표지해설」



야곱(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인 손자의 머리 위에
양손을 얹갈려 엎고서 축복하려고 하자
요셉이 그 손을 바꾸려 하는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린 성화이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에 베소서
6장1-3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같이 은혜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주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리고 무지한 나의 몸과 지식과 인격을 키워주기 위하여 물질과 시간과 땀과 눈물, 이 모든 것을 기쁘게 희생하셨으니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효도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2)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밟고 살며, 하나님이 내신 공기로 숨쉬고, 하나님이 내신 햇빛 아래서 자라난 곡식 과실 채소만 가지를 먹고 입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자기 자신이 복받을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2.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합니까

(1)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의 감사는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정중한 말로 드러져야 온전한 감사가 됩니다.

(2)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갚아보기 원하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사랑도 모자라고 정성도 모자랍니다. 다만 갚아보려 하는 정성만 가지자는 말씀입니다.

(3)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사랑과 정성이 깃들인 명령입니다. 또한 오랜 세월을 지나시는 동안 지식과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운 명령입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고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습니다.

(4) 범사에 자랑감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는 학교에서 자랑감이 되고 직장에 나가 일하는 자식은 직장의 자랑감이 되어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 것이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는

(5) 형제끼리 사랑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해도 형제끼리 싸우면 그 음식이 목에 가시가 됩니다. 형제끼리 우애하고 사랑과 정성이 오고 가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6) 부모님이 잘못하셨을 때에도 조심성있게 눈물로 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잘못하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큰 소리하는 것은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1) 성공합니다

「이는 네가 잘 되고…」(엡 6:3)

왜 효자가 모든 일에 성공을 하니까

첫째, 부모님께 효도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조심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친구도 조심합니다. 그러므로 실수 없는 성공자가 됩니다.

둘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쌓아놓았던 공덕도 한 순간에 제 손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효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한번 쌓은 공덕은 무너지지 않고 더욱 견실히 쌓이므로 성공하게 됩니다.

세째, 순종하는 생활로 부지런하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당장 순종하던 것이 습관이 되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불효자식은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그러다가는 잊어버리고 때를 놓치는 게으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네째, 부모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시고 부어 주시므로 성공합니다.

효도는 자식을 부모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왜 못 살겠습니까? 사람이 물을 퍼서 논밭에 주려면 그렇게도 힘든데 한 시간만 비가 와도 풍족해집니다. 이같이 사람의 노력의 성공과 하나님이 복주시는 성공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효자는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김 창인 목사
(당회장)

(2)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라」(엡 6:3)

첫째, 육신의 생명이 장수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병이 들어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입, 숨쉬는 코,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효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적 지혜가 생겨서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바로 처리하면서 충격을 남보다 적게 받으므로 마음에 안정을 누립니다. 마음에 안정을 누릴 때에 육신의 생명이 장수하게 됩니다.

둘째, 명예가 장수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 명예를 남깁니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한 신자, 부모님께 효도한 아들, 나라에 충성한 충신은 그 이름이 대대에 남습니다.

세째, 하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생명을 소유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효도를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므로 천국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자 신자가 되시고 땅 위에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효자 자식이 됩시다. 이같이 하여 여러분의 육신도 복받고 영혼도 복받고 자손만대가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정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창 1:27),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창 2:24) 읽지 못하였느냐(막 10:6~9)



윤영탁 목사

합동신학원교수 새가정 부지도

최근 어느 과격한 사회학자는 “가정의 사망(The Death of the Family)”을 부르짖은바 있다. 또 어느 심리학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20세의 두 사람이 결합하여 그들이 50년간 행복하게 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곧 3년 계획이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머지 않아 시험적 결혼이 널리 용납됨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했다. 우리는 이처럼 가정이 위기에 처한 시대에 살고 있음이 사실이다. 미국만 보더라도 결혼율이 낮아지는 반면 이미 결혼한 부부들의 이혼이 급증하여 가정이 파괴되며, 혼례식 없는 동거생활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게 된다. 이러한 타락 양상에 대하여는 우리가 일개 심리학자의 예언을 빌릴 필요도 없이 이미 성경 말씀(롬 1:18~32)에 계시되어 있음을 안다.

고대로부터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한 사회에서는 언제나 가정에 대한 기원과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함을 본다. 저 유명한 고대 바벨론 왕 허무라비의 법전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성자(聖者)라고 불리우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그의 철학을 논하는 것이 곧 그의 생애를 논할 만큼 둘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라는—에서도 가정에 관한 언급이 도외시 되었으며, 그 자신도 가정에 대해 무관심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제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돈보인다. 한때 사해 근방에 거주하며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자처하던 에센(Essene) 사람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불결하며 타락의 징조라 하여 이를 피했다. 중세의 암흑 시대에 이르러서도 결혼이 금욕과 독신생활에 비해 천하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더불어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고 성경적 입장에 입각하여 가정의 신적 기원과 중요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마틴 루터는 가정을 크리스찬 인격의 연마를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처소라고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칼빈은 그의 基督教綱要에서 가정은 창조주의 권위로 제정되었으며 그의 축복으로 성결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어떤 남성도 결혼외에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 자가 없다고 까지 그는 말한다. 그러나 문화, 예술, 사상에

하나님께서서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세상에 실현하실 복된 기관을 삼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

영향을 끼치며 성경의 권위에 크게 도전해 온 문에부흥, 계몽 주의 그리고 과학혁명등은 20 세기의 가정들을 또 다시 위기에 몰아넣고 말았다. 그러므로 로마제국의 붕괴가 로마인들의 이혼과 가정들의 파괴에서 기인했다는 기본(Gibbon)의 말을 상기하면서, 이때에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한 올바른 가정관을 수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람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 가정제도의 기원

사회학자들은 가정의 기원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이 본래 받은 사람이요 받은 원숭이의 모습이었을 때 때를 지어 다니면서 문란한 생활을 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정당하고 영구적인 배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립이 어렵다. 동물들도 평생 짝을 지어 다니는 것이 사실이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가정을 이렇게 설명함은 언어도단이다. 창세기 1~2장의 아담과 하와에 관한 기록에 있어서도 비판적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결혼 제도가 사회학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의 긴 역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제도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접합시킨 이방 신들의 결혼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단지 히브리 민족이 이상적 결혼은 어떠한가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적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의 본문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 발견하는 사실은 성경에는 신화적 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인간이 신들을 인간 스스로의 형상으로 만들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생활 방식에 있어서 까지도 똑같이 만든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와로 하여금 아담의 배필이 되게 그녀를 창조하신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 성경의 가르침에는 인간과 동물계의 구

별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과 동물계의 구별이 없다고 말하는 학자에 반하여, 본혜퍼(Bonhoeffer)까지도 아담은 동물들이 자신의 배필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담의 최초의 괴로움이라고 하면서, 그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들을 통치함을 뜻하는 것으로 옳게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종교 역사상 성경에서처럼 동물들이 중요한 위치에서 거론된 경우는 없다고 고백한다. 과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배필을 특별히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독특성과 아울러 동물의 위치도 바로 보여주고 있다. (레 18: 23, 20: 15, 신 27: 21 참조)

그러면 성경은 과연 가정의 기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0~24절의 말씀이 하나의 이상적인 가정을 그린 단순한 비유적 이야기이거나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정을 제정해 주신 가정의 기원을 말하는 실제적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거로서 분명해진다.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창 1: 27),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창 2: 24) 읽지 못하였느냐”(막 10: 6~9 참조) 사도 바울도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가정 제도의 기원을 인정하고 있다(엡 5: 22~33).

그러므로 가정제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제정해 주신 제도이며, 또한 창조주로부터 축복을 받은 제도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창 1: 28). 여기 「생육하라」는 원문은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다. 육체적 열매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의 그 얼마나 복된가.

이 아니라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할 의무가 인간에게 부여되었다. 「다스리라」는 말도 어떤 유대인 주석가의 말과 같이 인간이 사명을 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와 반대로 하락하게 되는 것을 내포한다(원문에는 ‘다스리다’와 ‘내려가다’의 두 동사가 유사하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다(호 6: 7).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복된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 먼저 밝혀져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아담은 창세기 2장 21~22절의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모세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깊은 잠이 들었던 아담이 이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은 23절이 가르쳐 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은밀한 계시나 또는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의도도 알게 하셨을 것이다.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인가! 깊은 잠이 든다는 낱말은 구약에 14회 사용되었는데 특히 창세기 15장 12~13절에 깊은 잠과 이상이 연결되는 점은 이 귀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삿 4: 21, 삼상 26: 12, 시 76: 6, 욥 1: 6, 단 8: 18, 10: 9 등 참조).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질문을 제시해야 하겠다. 창세기 2장 24절은 누구의 말인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모세가 설명적으로 부연한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4~5절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말씀하시기를」(5절 초두)이라는 문구는 본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말해 준다. 물론 이 문구를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 돌리려는 견해도 있다(New English Bible).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아담과 하와가 부모로서의 경험이 없었다는 점과 ‘이

러므로’라는 표현이 창세기에서 저자의 말을 소개할 때 쓰인다는 점을 들어 본문이 모세의 것이라고 주장한다(칼빈, 카일-델리취, 루돌프 등). 만일 본문의 말씀이 모세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진리를 아담은 전혀 알지 못 했다는 심각한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 과연 아담은 이에 대해 무지했을까? 이 문제에 관한 만족한 해답은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존머리(John Murray)의 견해와 같이 24절은 아담의 말인 23절의 연속으로 보아 아담 자신의 말이라고 보는데 있다. 그는 아담이 24절의 진리를 분명히 알았다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정제도가 인류 창조의 시초부터 생겼음을 밝히셨으니 그가 이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환언하면 이것은 이 복된 가정제도의 신적 기원, 일부일처제도 그리고 결혼의 영구성과 신비성이 인류의 조상에게 계시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제도의 신적 기원과 그 중요성이 인류의 조상에게 계시되었으며 또한 그 계시의 내용이 그들을 통하여 후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였다.

2. 가정제도의 목적

끝으로 이 가정제도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루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있어서 사람이 독처하는 점에 관련해서만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음을 발견하게 된다. “독신”이란 낱말은 구약성경 39권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다. 유대주의는 아내가 없는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아랍 사람들도 독신을 버림받은 자라고 부른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 배필을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한 몸이 됨에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목적이 전혀 없

가정들이 파괴되는 어느 나라도 망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거스리는 개인이나 사회는 파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정관의 수립은 死活的 주제이다.

는 것은 아니나, 그 주목적은 오히려 연합하는 면에 있다. 이 사실은 생육 번성에 대한 언급이 구약성경에 다만 극소수에 국한 되는데 비하여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바울의 글을 중심한 신약성경의 강조점이 모두 연합적 요소에 있음을 보아서 알 수 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하나됨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 하는 한 부부의 진정한 연합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 준다. 로이드 존스(Lloyd-Jones)는 크리스찬의 결혼은 불신자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신자라는 점만 다르며 그밖의 것들은 다 같다고 생각해서는 잘못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내 결혼 생활은 그 신비로운 관계에 부합한가.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가?" 이처럼 크리스찬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특별히 달라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유대인의 사회에서처럼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족하다는 정도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와 어머니가 공히 신자로서 중생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Mark-Twain)은 아담이 하와의 무덤 앞에 서서 그녀와의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회고하며 깊은 명상에 잠겼든 그로 하여금 마침내 그들의 가정의 영화를 다음과 같은 몇 마디로 요약하게 한다. "그 여인이 있던 곳에 에덴이 있었지!" 그러나 범죄한 그들의 가정은 실락원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로워진 가정으로 재출발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세상에 실현하실 복된 기관을 삼으신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되는 경건한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도구로 계속 사용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사용

하셨고, 아브라함과 욥의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구약 족장들의 가정은 제단을 쌓는 가정이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정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 그들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저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게 만든 원인이 나뉘에 있었겠는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한 한 레위인이 가정(출 2:1~2)이 거둔 당연한 열매이리라. 이렇게 경건한 성도의 가정에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출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로부터 십여세기가 지난 어느 날 범죄한 인간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하시려 나사렛의 한 경건한 가정에 구세주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이 그 얼마나 복된가! 마이어스(T. C. Myers)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정들이 파괴되는 어느 나라도 망하지 않은 적은 없다. 나라들이 군사적 패배, 경제적 타격, 기근, 식량난, 화재, 정권의 교체는 견디어냈다. 그러나 가정들이 파괴되면 학교, 교회, 정권 그리고 그 밖의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만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정관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다고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된다. 우리의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뜻에 순응할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되며, 우리 자신들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나라가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거스리는 개인이나 사회는 파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정관의 수립은 사활적주제이다.

모범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소개

—한 영철 목사님댁—



아내 : 김 필선
장녀 : 혜숙
차남 : 혜관
차녀 : 혜은
사위 : 이 경상

한 목사님의 고향은 평안남도 중화이시며 사모님은 경남 부산시가 고향이시다.

목사님은 육·이오동란 이듬 해, 17세 나이로 1·4후퇴 때에 홀로 남하하셔서 신앙생활을 부산에서 계속하셨다. 그리던 중에도 매일 새벽 기도에 열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부터는 평상시 그리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새벽 기도시간에 솔직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다고 하신다.

「하나님 내 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날이 약혼하는 날이 되고 결혼식은 천하제일 좋은 날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결국 기도하신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느 성도의 중신으로 음력 정월 초 하루에 결혼식을 올리셨다 하신다.

그래서 목사님의 슬하에는 이남이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다. 장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출가하였으며, 장남은 총신대 대학 중에 군입대(6월 제대예정)하였고, 차남은 대학3학년 재학중이며, 막내인 차녀는 여고2학년이다.

(다음은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생활의 일면이다.)

1) 우리집 하루의 시작과 마침

새벽에 기상하면 잠시 묵상기도를 올리고 곧이어 새벽제단을 쌓으러 교회에 나간다. 새벽에 첫시간을 주께 드린 후, 귀가하여 가정예배를 드린다. 모든 식구가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며 귀중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나서, 나는 교회로 자녀들은 학교로 아내는 집안 일에 여념이 없다.

저녁시간—이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는 활력이 넘치는 특별한 시간이다. 이 시간에 나는 트럼펫, 큰 딸은 피아노, 아들은 기타와 하모니카, 작은 딸은 바이올린 그리고 아내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발하여 자그마한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이룬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신명이 저절로 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결속된 화목을 주 안에서 다지는 귀한 시간이기도 한 것이다.

2) 은혜의 가정예배시간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는 잠시 말씀을 받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나서 트럼펫으로 찬송을 고요히 연주하노라면 모든 식구가 예배를 드리러 모인다.

묵도로 시작하여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몇 절씩 봉독하고 기도한 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다. 항상 드리는 가정예배이지만 매일 새롭게 느껴지고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시간으로서 우리 가정에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다. 그리고 내게는 공산치하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울러 남북통일을 기도하는 시간이다.

3) 나만의 시간

대개 매주 월요일은 성경연구와 기도로, 토요일은 기도실에 들어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은 나만의 귀중한 시간이다. 이 관습은 과거 부산에서 27년간 살면서도 송도해수욕장 한 번도 못가보게한 기적과 같은 정도의 생활습관이였다.

4) 가정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경외심
- 근편 겸소한 생활의 습관화
-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드리며 절대로 남에게 꾸는 일 없이 작으면 작은대로 사는 경제생활
- 시간을 귀중한 생명의 일부로 알고 세월을 아껴며 사는 삶
-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생명을 걸고 충성하며 사는 것

이와 같은 생활의 바탕에다, 무엇보다도 원망 없는 감사의 생활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인 것으로 믿고 있다.

끝으로 부족한 사람이 고향(평남)에서 피난의 대문을 나서기 직전, 어머님과 작별하던 때의 이야기를 잠시 해야겠다.

나는 그 당시 피난은 몇 십리를 갔다오는 것 정도로만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새벽기도를 올릴 때에, 네가 남쪽 끝까지 가게 된다고 알려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그 날 이후의 작별이 지상에서는 마지막이 된 것일까?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서나 어머님을 뵈올 수 있게 된 것일까? 그날 어머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애야, 예수님은 너의 생명이시며 너의 보배요 재산이시며 너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뒤돌아서서 치마 끝을 뒤집어 눈물을 닦으시던 그 모습이 고향 떠난지 3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눈에 선하며 그 음성이 귓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 후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밤에 성령님께서 「예수는 너의 생명이시며 너의 보배요 재산이요 인도자이시다」라고 일깨워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루 하루를 살며, 은혜의 방편은 중단없는 가정예배와 말씀의 연구와 기도의 경건한 시간을 갖는데 있었다고 믿는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하리로다.



장남 : 한 용관

우리 가정 소개



김 정태 집사(중등부 교사)

『모든것이 가하나 모든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것이 가하나 모든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3~24)는 이 말씀대로 운전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에 위로를 받으면서 돌아왔다.

아침 식사 후, 큰 딸과 큰 아들 수준이와 막내 아들 동용이를 데리고 오늘의 말씀인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를 암송하고 나섰다.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천국의 생활을 이 땅 위에서 맛 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라고 확신하는 우리 집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특히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처소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

가정예배는 가정예배서(류형기 편지)에 의해 찬송 후,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고 말씀을 상고하며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략 소요시간 30분 정도에 마친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요절말씀)은 모두 꼭 암송하도록 한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식구가 성경말씀을 읽도록 한다.

가혼은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편 1:1~2)라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첫째로 하여 아내의 신앙생활을 견지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충현의 식구가 되려고 노력한다.

갑자기 머리맡의 사발시계가 때르릉 울려서 잠을 깨었다.

새벽 4시 반, 우리 두 내외와 큰 딸 강운이가 서둘러 세면을 마치고 여의도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아파트를 나서니 4월의 초봄답지 않게 매우 추웠다.

우리 셋은 겨울 외투들을 걸치고 여의도 광장에 막 도착하니 확성기에서는 우리 김 창인목사님의 음성이 들렸다.

‘개성 사리원 황주 정주 …… 두만강까지 가서 백두산 소나무 꺾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이 기도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그제야 잠에서 완전히 깨어 가슴을 뭉클케 하는 무엇인가가 와서 닿는 것을 느꼈다.

아침 6시-점차 날이 밝아 오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계신 김 창인목사님의 모습은 더욱 선하게 보이셨다.

통성기도도 하고……

은혜스러운 부활절 새벽 예배를 마쳤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택시가 법규를 위반하여 스티카를 끊었다. 그런데 운전사는 화풀이를 손님인 우리에게 한다.



김창인목사의

이사야 강해(8)

(사 1 : 21~31)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
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
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사 1 : 21)

후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깊
이 탄식하시는 안타까운 부분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떠하였는
데 지금은 어떠한 자리에 떨어졌
느냐’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여러
분은 부디 이전보다 나아지는 성
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
떠합니까?

1. 전에는 신실하던 성읍이 지
금은 창기가 되었읍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
가 되었는고』(사 1 : 21 상)

전에는 신실하던 성읍이 지금
은 창기가 되고 말았구나 하는
탄식이 첫째 말씀입니다.

(1) 전에는 신실하였읍니다

여기 신실이라는 말씀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신용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있었
다는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절개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육신
의 생활도, 신령하고 절개를 지
키는 신실한 이스라엘이었건만

(2) 오늘은 창기가 되고 말았
구나

창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도 섬기므로 남편이 둘이란 말입
니다.

왜 이렇게 창기가 됩니까? 하
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
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기 때문입

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
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알
았더라면 절개를 지킬 것인데 하
나님 무서운 줄을 몰랐읍니다. 그
래서 전에는 신실하던 성읍이 오
늘에는 창기의 자리로 떨어졌읍
니다.

2. 이전에는 공평과 의리가 있
던 성읍이 지금은 살인자들
이 되었읍니다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사 1 : 21)

이전에는 공평하고 의리를 지
키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에는
살인자들만이 남았구나,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했읍니까?

(1) 이전에는 공평하였다

공평이란 말은 저울에 달아보아서 꼭 같다는 말로서 치우침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평, 우리는 공평해야 되겠는데

① 어디서 공평해야 되겠습니까

가) 물질거래를 하는데 공평해야 합니다. 돈거래를 하든지 물건을 나누든지 동업하는 사람끼리 이를 나누든지 공평해야 됩니다. 썩어지고 적은 것은 남을 주고 크고 좋은 것은 제 주머니에 넣는 욕심쟁이는 공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취급할 때에 내 양심에 비추어 보고, 세상의 법규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아서 치우치지 아니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나) 사건을 취급할 때에 공평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제직을 제명하고 처벌한다 할 때에 그 사람은 내 조카니까 봐두고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건을 취급할 때에 공평해야 됩니다.

② 공평하려고 하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공평합니다

- 욕심에 끌리지 않고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 인정에 끌리지 않고 공의에 서야
-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않고 강직하여야
- 어리석어 남의 말에 속지 않고 좌우를 분별하여야 하는

이상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공평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숨어있는 사람이 공평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욕심에서 떠난 후에 공평해 집니다.

또 누가 공평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내 사위니까, 이 사람은 내 딸이니까, 이 사람은 내 동창생이니까…… 그 따위 생각이 떠나야 합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세력을 무시워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세력을 무시워 하는 사람은 공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 내용을 세밀히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래 그래” 이용 당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을 이 사람의 말도 듣고 저 사람의 말도 듣고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공평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평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물질 거래나 사건 처리에 있어서 언제든지 옳은 것을 따라가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2) 지금은 살인자만 넘었습니다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21화)

살인자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만 것을 더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돈이나 세력의 가치를 더 앞세운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돈을 좋아하다가 돈 없는 약자를 밟아 버립니다. 돈 때문에 가짜 약도 만들어 팔고 독있는 음식도 만들어 팔고 도적질도 하고 남의 어린아기를 유괴하여 죽여놓고도 돈을 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돈보다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장관 대통령 국회의원이라는 세력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좋아하는 권력자들은 부정선거를 하고 애꿎은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고 죽입니다. 이같이 사람의 생명보다 세력이나 돈의 가치를 앞세우면 살인자입니다. 그러니 살인자만 남았구나, 이것이 바로 이전만 못해지는 선인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3. 하나님의 종이 타락했습니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사 1: 22 상)

(1) 은은 교역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교회의 지도자들과 은과 같이 비유하셨습니다.

첫째로, 은은 무게가 있습니다. 중량이 있어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은과 같이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말 한 마디도 탕탕 함부로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걸음걸이 한 걸음도 못 갈데 갈데 함부로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무게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둘째로, 은은 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이 붙어서 나 녹을지

라도 은은 은대로 있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몽땅 다 녹아 물이 될지언정 은은 은이지 변하거나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좋은 어떠한 환란을 만나도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2) 그런데 지금은 찌끼가 되 었도다

찌끼는 어떻습니까? 무게가 없어 가볍습니다. 바람만 불면 훌쩍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바람이 부는대로 이리저리로 날아가는게 찌끼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종이 바람만 불면 날라가는 속이 텅빈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 종들이(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가대원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은과 같이 중량이 있고 변치 않더니 지금은 찌끼가 되었고요. 이전에는 환란과 핍박을 만나도 믿음을 잘 지키더니 이제는 핍박이 온다는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원수의 앞잡이가 됐으니 찌끼가 되었읍니다.

아무리 일본 사람이 신사참배를 시키거나 소련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아무리 늘려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더니 지금은 찌끼가 되었도다. 이는 무가치한 교역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 속 사람도 중량이 있고 겉 사람도 지식이 있어서 무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찌끼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환란이 오면 폭삭 주저앉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4. 전에는 순수한 복음만 전하 더니 지금은 그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구나』
(사 1:22 하)

이전에는 진짜 포도주더니 지금은 물이 섞였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짜 진리만 먹이더니, 지금은 설교에 세상 지식을 섞고 지국강연이 섞이고 더럽고 쓸데없는 것이 섞였다는 말입니다. 잡탕이 섞였으니 이전만 못해진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제목입니다. 구약 선지자들 모두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느니라” 외쳤고 세례 요한의 설교제목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설교를 들으면 죄라는 말이 있나, 회개라는 말이 있나 대개는 술을 넘어가고, 그럴듯하게 넘어갑니다. 천국 지옥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아무 철학박사가 하는 말이 이렇고 아무 문학박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렇고, 시국이 어찌고 저찌고 이 따위 소리만 합니다. 이러니 물이 섞였구나! 물이 섞였다는 말의 제일 무서운 뜻은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면 세력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입장이 어떻게 돼?” 하면 “예, 예, 그저 하라는대로 할게요” 그러더라 말입니다. 물이 섞였구나! 판 것이 섞였단 말입니다. 원컨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물이 섞인 설교를 하는 교역자는 한 사람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5. 법을 잡은 사람들은 패역해 졌읍니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1:23 상)

이 방백이란 말은 세상의 벼슬 높은 나리님들입니다. 세상의 법을 잡은 사람들로써 경찰, 검찰, 재판장, 구청장, 시장이라든지 면장, 군수, 도지사, 장관 전부를 방백이란 말로 말씀했읍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방백들은 패역하여” 패역하다고 그랬읍니다. 패역이란 말의 뜻은 알고도 거스린다는 뜻입니다. 몰라서 실수하는게 아니고 뻔히 알면서도 딴 짓을 한다는 뜻입니다. 패역! 거기로 가면 죽는 것을 알고도 우기면서 가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알고 양심을 속이고, 알고 웃 사람을 속이고, 알고 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그러면 패역한 자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 도적과 짝합니다

짜한다는 말의 뜻이 참 무섭습니다. 동업한다는 말이니 도적과 동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강패를 키워서 동업을 하며 정치를 하고, 쓰리하고 도적질한 사람을 형사가 불러서 “너 오늘 얼마 벌었니 좀 내라” 하여 나눠먹는 동업을 합니다.

(2) 뇌물을 사랑하며 시레물을 구합니다

뇌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 좀 가져오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가져와 안 가져오면 안 된다” 것입니다. 그리고

(3)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합니다

뇌물을 안 바치는 사람의 일은 3년, 1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니 기가 막힙니다. 이러면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난한 자와 약자들은 발붙일 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너희들이 이전만 못해졌구나 하고 탄식하십니다. 옛날에는 신실하던 성읍이 오늘에는 창기가 되고 말았구나. 옛날에는 공평과 의리가 충만하더니 지금은 살인자만 남았구나. 옛 교역자들은 은처럼 귀하고 중량이 있어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펄박과 환란의 불이 불어도 변하지 않더니 이제는 찌꺼기만 남았구나. 옛날에는 설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더니 지금은 세상 얘기만 하는구나 이전에는 방백들이 세상의 법 잡은 자들이 약한 자들과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더니 이제는 가난한 사람의 등가죽을 벗기고 있구나 이전만 못해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만 못해졌으니 내어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통에 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본문 24절부터 31절까지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전만 못해졌으니 할 수 없다. 심판해야겠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

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떨어지기 전에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심판의 몽둥이가 떨어지면 야단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이전만 못해졌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속이면 쉽게 넘어갈 줄 알고, 하나님의 몽둥이가 기다리는 줄을 모릅니다.

세째로, 개인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한데 그걸 몰랐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귀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여 이 모양이 되는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말고 이전보다 나아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십시오.

□생각해 봅시다

신앙의 절제

관광버스가 지나간다. 그리고 그 차안에서 고성이가 들려온다. 유행가와 박수소리이다. 그 뒤에 ○○교회의 버스가 지나간다. 그리고 그 차안에서도 고성이가 들려온다. 복음송과 박수소리이다. 예수믿고 은혜받아 기뻐서 그렇겠지만 일반인의 눈에는 ○○교회 버스를 탄 ○○교회 사람들의 행락 정도로 밖에는 안보인다.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23절에는 믿는 자에게 있을 「절제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차안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보다 신앙인으로서의 경건된 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공원에서 길목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쁨을 빠르게 나타내는 절제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새성전 이사에 즈음하여

II. 새성전에 설치되는 장비및 설비는 어떤 것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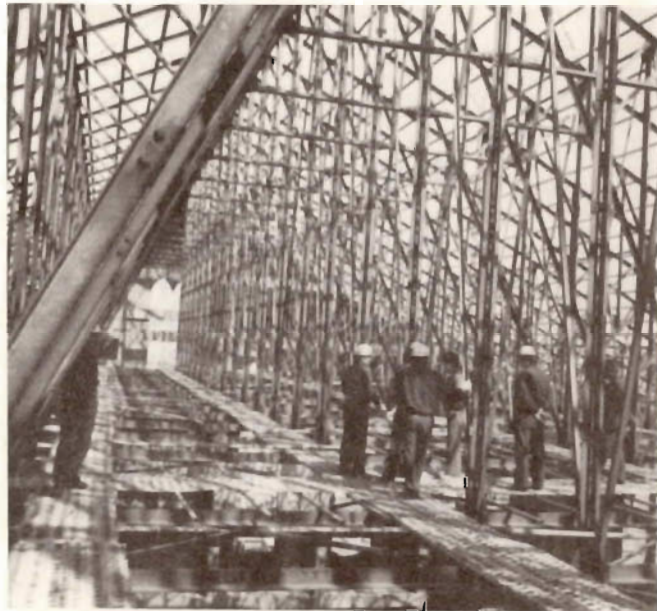
최 환 집사

나는 가끔 솔로몬의 성전에는 무엇이 장식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곤 한다.

거기에서 제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향하신 지엄하신 명령과 사랑과 구원의 말씀이고, 제이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정성이 담긴 땀과 피와 눈물, 그리고 재삼은 금은보화로 장식되어 있다고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충현의 새성전은 무엇으로 장식되어 가고있는가? 여기에는 오늘과 내일을 향한(그리고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그 안에 있는 북한에) 주님의 지엄하신 선교의 명령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사신 교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참여하는 하나님께 향한 눈물의 기도와 땀을 흘리는 정성스런 헌신과 교회 사랑이다. 충현의 성전 안에는 한 마디로 말해서 정적인 금은보화의 장식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필요한 장식이라고 보겠다.

전일 주일 대예배 시에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누가 인간이 무어라고 해도 우리는 천국일군을 양성하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고 민족복음화를 하고 북한선교를 주님보시기에 합당하고 효율적으로 할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성전건축을 해야할 것



지붕 내부 공사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 모든 일을 주님께 영광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설치되는 장비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건물에 직접 관련되는 시설물과 간접적으로 시설되는 시설물을 들 수가 있는데

첫째로 직접적인 시설물은,



143 36 16

본당의 전면과 후면

1. 본 당

가) 건축공사에 사용된 모든 것

콘크리트, 벽돌, 페인트, 금속장식, 목재장식, 석재, 대리석, 장식류등 건축공사에 직접 부착된 모든 것들 중에 자연적인 하자가 발생되는 것으로는 방수, 물흙통, 타일류등을 들 수 있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유리, 문짝, 장식품, 페인트 칠한 곳에 충격을 가하거나 예리한 못같은 것에 의해서 긁혔을 때와 문고리 같은 것을 함부로 난폭하게 다루어서 손상되는 것 등등이 무수하게 있다.

나) 전기공사에 사용된 모든 것

전기, 파이프, 전선, 스위치, 전등, 특수조명, 장식조명, 외등, 표시조명, 콘센트, 배전판 등등이 있는데 자연적인 하자 발생은 공사불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과 사람손이 자주 닿는 부분을 험하게 다루어서 발생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자동장치에 의하는 것도 역시 전기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하여서 계산을 한 전기의 총사용량은 최대 부하가 걸렸을 때 3.000KVA가 된다.

다) 냉난방및 기타 설비공사에 사용된 모든 것

파이프, 배관, 닥트배관, 공조기, 콤팩터및 라지에터, 변기류, 세면기구류 기타 여러 기구들을 들 수 있는데 자연적 하자 발생이라고 하면 설치완료 후 충분한 수압이나 여러 검사과정을 거쳤으나 미약한 곳에서 발생하는 하자, 인위적인 하자로서는 사람의 손이 자주가는 변기류나 위생기구류에 자주 일어나게 되며 또는 어린이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나사를 틀어서 손잡이류를 빼어버리는 경우등을 들 수 있다.

라) 음향기기 영상및 비디오 동시번역기기 기타 방송설비 기계등

자연적인 하자발생이라고 하면 충분한 검사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최선을 다해 했어도 전선 접속이 좋지않았다던가 기계 자체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성능이 쉽게 저하하여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를 생각하게 되는데 특히 음향제품이나 동시번역, 영상제품, 비디오제품들 중에는 국산이 좋은 것들도 많이 있으나 대다수가 이런 종류는 생산및 연구 발명하기 시작한 역사가 짧고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하자발

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반면에 이런 비품이나 기계류등은 반드시 담당 기술자나 수년간 기계를 다루었던 사람이 만지거나 조정해야 되는데 별로 기술도 없고 특별한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기계를 자주 손을 댄다고 하면 고장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

마) 통신기기, 소방기기등(전화, 인터폰 소방용 소화전 위험표시 스위치, 소방감지기 등)

특히 이런 경우의 기계들은 자연발생의 하자요인이 많겠으나 통신기기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면 다 사용하는 비품이기 때문에 사용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잘되고 못될 수가 있다고 보겠다. 전화나 인터폰은

2. 선교센타

가) 건축공사에 사용된 모든 것
나) 전기공사에 사용된 모든 것
다) 냉난방및 기타 설비공사에 사용된 모든 것

모든 것은 본당과 동일하나 냉난방의 방법이 본당과 달라서 본당은 닥트로 천정에서 찬공기, 더운공기가 나와서 냉난방이 되지만 선교센타는 펌코일 유니트시스템으로 창문 밑에 가구와 같은 모양의 박스(상자)에서 찬공기 더운공기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방안에 공기를 적당한 체감온도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형식이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직접 스위치를 올려서



동판 지붕 공사 광경

앞으로 교환기에 의해서 사용이 되므로 꼭 필요시가 아니면 사용을 피해야 된다. 소방기기 같은 경우에는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하기 때문에 특히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다.

바) 기타 장식 비품등등

이런 경우도 자연적인 하자발생은 적으나 인위적인 하자의 요인이 많다고 보겠다.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겠다. 이와 같이 과학문명이 발달하여 감에 따라 모든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나 잘못 사용을 하면 위험(생명과도 직결되는)도 많이 따르지만 손끝으로 단추를 눌러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폭하게 다루거나 필요 이상의 힘을 주거나 하면 고장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라) 음향기기, 비데오, 동시번역기기, 기타 방송설비

선교센터는 교회의 행정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당회실이 있는 곳이에요 각 선교전도의 단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회장실에는 교회 대예배실의 설교나, 예배장면, 중강당의 예배나, 회의과정 선교센터 회의실의 회의 장면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비데오 시청 모니터가 장치되어 있다.

마) 통신기기 소방기기

선교센터에 교환대 설치가 되어있으며 이 교환대는 200회선이나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3. 교육관

가) 건축공사에 사용된 모든 것

나) 전기공사에 사용된 모든 것

다) 냉난방및 기타 설비공사에 사용된 모든 것

이 교육관에는 냉방시설은 없고 다만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난방 콘벡트(라지에터와 동일)가 시설됐다.

라) 음향기기, 영사기, 비데오, 기타 방송설비
교육관에 방송설비는 특별히 사용상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특히 교육관에는 앰프 조정이 있어서 유급의 조정기술자가 각방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하는 교회직분을 맡은 사람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담당케 해야 된다. 그래서 기계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어린이의 손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주차설비, 주방설비, 보일러실의 여러 기계설비, 변전실의 변압기및 자동장치등은 여러 사람의 기술자들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맘을 흘려서 건축해놓은 건물과 시설물들을 어떻게 하면 손상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는가 스스로 조심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

●하나님의 요구

- 1) 네 자녀에게 복종을 가르치라
- 2) 그에게 순종을 가르치라
- 3) 그를 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
- 4) 하나님께서 지으신대로 그를 가르치라
- 5) 그를 갓난 아기 때부터, 결혼해서 집을 떠날 때까지 가르치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요구를 이룬다면
우리 자녀가 성숙해졌을 때
우리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배브리 라헤이〉



※참고 양은순 역, 라헤이 저
『생명의 말씀사 간행
『기질과 자녀 교육』

-4월 어느 주일 낮에-

좁지만 충현으로서는 대단히 큰 운동장인 천막밑. 어디가 목표지점인지는 모르지만 한 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양손으로 땅을 짚고 목표를 향해 뛰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보인다. 땀으로, 먼지로 줄무늬가 만들어진 얼굴도 어린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준비~땅” 소리만 나면 뛰어 나갈꺼야.

그런데 어린이들 틈에 새동무(?)가 들어왔나봐. 한 어른이었다. “준비~땅” 자세가 천진난만해 보이기만 하다. 여러 성도들의 눈은 신기한 듯이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신 당회장 김 창인목사님에게로...

위험하게도 창가에, 계단 난간에 매달려 있는 어린이들 뒤로 살짝 다가가시어서는 썩 웃으시고 뭔가 이야기하시니까 개구장 아이들이 암암없이 내려 오는데... 뭐라고 이야기 하셨을까?

소리지르고, 욕박지르고, 험크처럼 무서운 얼굴을 한다고 위험한 난간에 아이들이 안 올라갈까? 금방 다시 올라갈 텐데. 금방 또 떠들텐데 뭐.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가라고 쫓을 때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러셨지요? 그때 어린이들을 안아 주시면서 뭐라고 많은 이야기하여 주셨을까?

5월 어린이 주일

하늘나라 꽃인 너희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른들의 눈에 보이는 너희들-지금은 겨자씨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이 이담에 이담에 자라서는 많은 사람들을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같은 사람들이 될꺼야. 겨자나무는 처음부터 큰 나무가 아니래.

꽃처럼 예쁘게, 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라는 하늘나라 일꾼 되도록 도와 줄께.

순 교 자

그대의 눈은 진리에 불타며
거룩한 얼굴엔 영채가 가득

사자에게 찢기고
화염으로 휩싸여
한 조각 육신의 파편만이 흩날려도
고귀한 영혼은 영광의 종려

솟아 나는 기쁨을 무엇으로 막으리
죄 많은 세상의 장막을 떠나
새 하늘 새 땅에 새 몸으로 들어가
어린 양의 품에 영원히 안기라

승리
승리
영원한 승리

얼마나 갈망했던 시온이던가
사랑하는 예수님
보고팠던 예수님

안 명수



욥의 친구들

—의원아 너를 고쳐라—

[저..., 저...]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하는 말을 누가 듣지 않을까요?]

[비밀을 지켜 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이지요?]

[네, 정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드리지요. 이 이야기는 무덤까지도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인데요...]

우리의 삶이란 한 순간에는 행복스럽고 안정된 삶을 즐기지만, 다음 순간에는 모든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때가 있다.

삶이 왜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 질병, 고난, 실패, 낙심, 외로움...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모든 사람은 가슴이 공허하고 사랑이 고갈되어 있다. 그러기에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안될 사람들이란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상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신앙의 선배, 교사, 집사, 권사, 장로, 지도자로서 본의 아니게 신앙 상담을 해야 할 때가 생긴다.

[선생님은 어쩌면 그렇게도 제 마음을 모르세요. 제 입장이 되어 보셨나요?]

3시간이나 오간 대화였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외마디 절규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더 많은 세월을 견디어 내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녀에게 나는

신(God)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권위를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존경하며 듣도록 설교했던 것이다.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내게 그녀는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내 못하고 말았다. 그녀의 내면 세계와 연결되지 못한 채, 그녀를 나의 지식으로 조종해야 할 대상 혹은 고쳐야 할 물건으로 판단하고 설득시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번쳐쳐하는 안위자(욥 16: 2)가 되고 말았다. 그녀는 욥과 같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욥 13: 1, 2)고 꾸짖으며 나에게서 떠나버렸다. 연약해진 상대방의 아픔을 신랄하게 지적해가며 자신만만한 나의 모습에 부딪혔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녀에게 건딜 수 없는 아픔을 주며 못질을 해서 돌려 보낸 나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웠다.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는 한마디의 말은 무슨 자존심으로 못하고 말았을까?

고민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화이다. 우리는 복음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복음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통적인 신학 언어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대하여 세속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인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가? 억눌린 삶의 몸부림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온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제십니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할텐데...상대방의 허물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한 마음과 따스한 인정이 깃들어야 할텐데...사랑이 많은 곳—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이기에 지친 몸 이끌고 나오건만, 냉정한 판단, 손가락질,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부정한 입밖에는 갖추지 못한 우리의 인격을 바라볼 때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영혼이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양심의 깨우침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남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삶의 물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여, 「영혼이 병들었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라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무시하기 쉽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와 번뇌를 안겨 주게 된다. 부끄럽고 가슴 저미는 죄를 범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으련만 상대방에게 박힌 못은 어떻게 뺄 수 있으랴? 「요즈음은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그래, 성경 읽기가 힘들지.」 이 한마디면 상대방의 눈시울이 뜨거워질 것을... 「네가 주일에배도 빠지고, 성경공부도 안 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우리 마음은 한 치의 열림과 낮아짐도 없이 상대방의 마음의 비밀은 억지로 유도해내려고 눈치 없는 작전을 서두르지는 않았을까?

오! 주님.
저는 욕의 세 친구들이옵니다.
저는 간음한 여인을 향해 돌로 치려던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수한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광녀입니다.
저는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지 못한 위선자입니다.

나는 상담자가 되기 전에 “의원아 너를 고치라”(눅 4:23)는 말씀처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고침을 받아야(healing)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부수지고 녹아진 성품과 순종하는 인격이 생활을 통해 흘러 나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생활에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삶의 비결을 배워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임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간절하며 즐거워 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도 함께 울 수 있는 어린 마음을 갖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다.

주여 성결된 삶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히 맺히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청소년부 교사 정 인 선

■신간안내 ■ 인간의 곤경과 하나님의 능력

“초대교회를 강하게 했던 자기 절제와 훈련을 회복해야 된다”

이 책은 다섯 장의 능력있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마다 로마서 1장에서 가져 뽑은 본문을 기초로 하고 있다. 로이드 존즈 목사는 복음의 권위로 실용주의적인 세계를 대담하게 도전한다.

그는 교회가 새로와 질 것

을 촉구하며, 초대교회를 강하게 했던 자기 절제와 훈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로이드 존즈 서문에서 「도날드 맥크라켄교수는 마지막 강좌가 끝났을 때에 이 일련의 강좌야말로 신학적인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성경신학을 강제한 것’이라

는 친절한 묘사를 해주셨읍니다. 저는 그 묘사에 만족합니다. 저는 다만 이 강좌들이 기초하고 있는 위대하고 무서운 성경 대목을 파헤치려는 제 시도가, 적으나마 슬프게도 게을리 되고 있는 근신과 훈련에 부흥의 불길을 당기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로이드 존즈 지음 서문 강 옮김 70미색모조 120면 1500원 정음출판사

거듭난 자의 모습

그녀는 1980년도에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재원이다. 졸업을 하자 사방에서 혼처가 나섰다. 재벌의 아들이 아니면 권력가의 아들이 아니면 모두가 소위 K.S마크의 수재들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런 사람만 원했다. 그러나 본인은 남자가 키가 작다고 거절, 남자가 나약해 보인다고 거절, 더 박력이 있는 사람, 더 멋있는 사람 등을 원하여 모두 거절하였다.

그녀의 부모는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원하는거야, 그러면 코쟁이한테라도 가려느냐”고 화를 내었다. 그러던 차에 외국어대학에서 동시통역관 모집이 있어 거기에 응시하였다. 여자로서는 드물게 합격하였다. 1년 동안 국내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국비장학생으로 불란서에 2년 동안 유학하는 영예의 길을 떠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주일공사, 호주대사 등 10년 동안 외교관생활을 하고 지금은 모회사 사장으로 있고 어머니는 나의 대학 2년 후배 동창이다. 우리 동창생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지 않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었다. 2년이라는 불란서 유학이 그녀의 생애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1년쯤 되어서부터 그 집에 보내오는 편지에 기독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지난 4월에 돌아올 무렵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등 부모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편지마다 적어왔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스페인 여행 도상에서 불란서인 친구의 감화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어 드디어 예수님을 받아 중생(born again)되었다. 그리하여 「주 예수님을 믿

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하였다.

자기 집부터 전도를 시작하여 부모, 언니, 오빠에게 예수를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더니 자기 배후자까지도 믿는 사람을 택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그 결혼을 말리려고 미국에 있는 큰 아들 집까지 쫓아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대는 불란서에서 알게된 젊은 외교관이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평범한 시골에 사는 집안의 맏 아들이었다.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 부모가 바라던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꼭 차있는 똑똑한 젊은이였다. 결혼은 그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고 딸이 하는 것이니까 부모도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하였다.

3월 18일에 Y·W·C·A 강당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23일에 중앙아프리카 임지로 임명을 받고 장도에 올랐다. 그녀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기에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 것도 필요치 않다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남편은 외교관으로 자기는 평신도로서 선교 활동을 하겠노라고 기쁨에 넘쳐 빛나는 얼굴로 먼 장도에 올랐다.

이 젊은 부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안 유향 권사

나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 사랑하는 J에게 -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사랑하는 J에게 임하기를 항상 기도한다.

나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이렇게 나 자신에게 반문할 때, 나로서는 먼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꿈에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 다음은 그런 나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참빛을 주셨는데, 내가 과연 그 주님의 귀하신 참된 뜻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란단다.

● 혼돈과 방황, 어둠의 시절

부모님의 품 안에서 꿈 많던 어린시절을 보낸 나는 고등학교는 서울로 유학하게 되었었지. 시골소년이 그리고 동경하던 서울은 사실 화려하긴 했으나 해가 갈수록 어두운 그늘이 너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았지.

끊임없이 뿜뿜거리는 차소리는 마치 큰 괴물의 울음소리와도 같았으며,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무표정하고 냉담한 얼굴, 그 많은 사람의 행렬 속에서, 내가 알고있는 사람이란 하나도 없다니, 정말 내면으로는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일본사람을 우리민족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러하듯 나는 어떤 영웅주의에 빠져있었지. 그런데 내 뒷자리의 급우 H는 무척이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나는 그 친구와 자주 신앙에 대한 수많은 논쟁을 벌였으며 그 논쟁은 매양 결론을 얻지 못한채 끝나고 말았단다. H는 원죄등 죄에 대해 거듭 강조하였으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말인가? 나는 그런대로 성실하고 착실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지 않은가? 나는 죄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였느냐고 반문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다가 나는 육사를 지망했었다. 그러나 나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길 원한 것이 아니었고 영웅적 군인정치가상(像)을 꿈에 그리고 있었단다. 육사시험은 예상대로 합격했으나 면접시험에서 평소의 정치관과 육사 지망의 동기를 말한 것이 시험관의 비위를 거스렸던지 낙방하고 말았다. 그 때의 좌절감이란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다. 왜냐면 그 당시 나는 권력예의 의지에 나의 전인생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꿈꾸던 장래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할 수 없이 뜻에 없던 대학에 진학했으나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한 채 끝없이 방황하는 상태였었다.

그러던중 "상영아 예수님을 꼭 영접해야한다"고 권면하시던 고모님이 돌아가셨다.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이며 인생은 무엇인가? 그 근본 근원을 흐르고 있는 섭리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것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열변을 토하했던 환

머리 희끗희끗한 철학교수님의 강의 속에서도 결코 해결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J!

난 한 때에는 석가에게 깊은 애착을 느낀 적도 있었지.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의문은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채 유리하는 상태였었다. 진실로 혼돈과 방황의 시절이었지.

그런데 하루는 교양과목이었던 논리학 시간에 교과서 첫 페이지에서 요한복음 1장1절을 읽게 되었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어. 나는 그때까지 성경을 하나의 도덕책으로 밖에 여기지 않았었는데 성경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전과 똑같이 방황하는 상태였고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해도 미궁 속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 머려쳐서 죄인임을 깨달게 해 주시고 참된 빛을 주신 주님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 군입대 영장을 받게되었었다. 내가 군훈련소에 입소한 것은 가을에 접어들 무렵이었다. 입소 다음 날부터 강 훈련이 시작되었지.

그렇게 힘겨운 훈련이 계속되고, 이젠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그 날은 각개전투날이었다. 준비운동인

PT체조를 시작하므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는데, 이 PT체조 중, 나는 정신을 잠깐 딴 곳을 향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욕설이 들리면서 “너 이리 나와”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조교가 얼굴을 붉히면서 나를 노려보고 있다. 불려나간 즉시 정신없이 일어났었다. 입술이 터지고 정강이의 살이 찢겼는지 혼련복에 닿아 쓰라졌다.

각개전투가 시작되었다.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응용포복, 철조망 밀통과, …… 무릎과 팔꿈치가 벗겨지고 피와 진물이 흐르고 있어 몹시 쓰라렸다. 터진 입술은 지근거리고.

그렇게 가슴이 비통하고 분노로 뒤죽박죽이 된 적도 또한 인간을 저주하고 한말을 느낀 적도 드물 것이다. 조금만 친절히 포복을 하여도 조교는 군화로 엉덩이를 짚어 찼다. 정말 조교를 패주고 싶었다. 그 보다도 인간제도의 잔학성을 가슴속 깊이 느꼈다.

그런 가운데, 철조망 밑을 간신히 통과하여 조교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마음은 어둡고 악, 분노와 저주로 어지러웠고, 온 몸은 진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로 얼룩지고 찢긴 옷 등에 나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나 자신까지도 저주하며 드러누어 버렸다.

그때

일그러진 눈안에 가득차 들어왔던 그 파아란 하늘, 구름 한점 없었던 하늘, 너무도 맑고 파랗기 때문에, 내 자신 부끄러워 몸을 숨기고 싶었던 그 하늘 빛.

아마 아담도 범죄한 후, 나무 뒤에 숨었때, 이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었다.

그 하늘은 어찌면 주님의 얼굴 같기도 했다. 주님의 찬찬한 미소 같기도 하였다.

‘보라. 너의 비참하게 쓰러져 버린 벌거숭이의 네 모습을. 너는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겼었다. 네가 하는 일이 항상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리고 네 나름대로 아집의 성을 쌓고 그것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네가 추구했던 의로운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나? 너의 애국심도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도 사회를 걱정한다는 것도 모두가 가식이었지 않은가? 너는 항상 너 중심이었다. 너의 명예를 위해, 너를 드러내기 위해, 네가 군인이 되고 또 가소로운 영웅이 되어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바로 많은 군사를 훈련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대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헛된 꿈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네가 지금 당한 것과 같이 훈련시켜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이룰려고 했던 말인가? 세계 역사를 보면 칼로 일어난 수많은 인간의 행렬이 결국 칼로 망하여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진실로 그 위대하신 분 앞에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는 보잘것 없는 초라한 쓰레기 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부복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은.

나의 온갖 방황과 고뇌 속에서 해결치 못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단 한번의 내리치심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이다.

훈련을 마치고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훈련소를 나올 때 나의 손에는 기드온협회에서 나눠 준 자그마한 성경 한 권이 들려져 있었다. “기뎁난다는 것” 그것을 주님은 그 피맺힌 훈련소 산등성이에서 이뤄 주셨던 것이다.

그 때부터 모든 생활이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간 것 같다. 참된 평강—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주길 원했던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이었다.

바쁘고 긴장된 군대생활에서도 틈틈이, 특히 군생활 마무리 할 무렵, 휴전선 부근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참호 속에서 읽던 시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32편)

그 은혜스러웠던 말씀들이 기억에 새롭다.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얼룩진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의 기적이었다.

●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참 소망과 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비록 주님을 영접했으나 제대후에도 교회에 참여치 않고 있었다. 홀로 기쁨을 찾고 있었지. 하루는 모교에 들리다가 교고시절에 신앙 논쟁을 자주 벌였던 친구 H를 만났다. 참으로 이상한 만남이었다. 너무도 반가웠지. 그 친구는 나에게 충현교회를 소개해주고 또 동창인 윤○○이 있으니 잘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러나 나는 내 생활속에 파묻혀 혼자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 친구의 권고를 까맣게 잊은채 거의 2개월이 지난 후, 이었을 것이다. 버스를 타고 을지로2가로 가는 도중에 까맣게 잊고있던 윤○○의 발을 밟음으로써 만났던 것이다.

그 때, 그 감각.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의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에 믿음이 연합하였던 나를 잊지않고 기적적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다.

매스콤 전도의 발전을 위한 모색



노 경모집사

(장년새신자부교사)

I. 서 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전파사역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복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고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최대의 과제이다. 신구약시대의 복음전파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된 육성과 서신은 다양해지고 다변화되고 거대해진 현 사회속에선 여러가지 한계성을 드러내고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의 복합적인 한계와 제약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창안하여 복음전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수단이 대중전달수단이라고 부르는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 줄여서 매스콤이라 부름)이다.

매스콤(mass com)전도라 하면 꼭 방송을 통한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털어 매스콤전도라고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매스콤전도의 양상을 어떠한가 하며 한국 교회, 특히 2000년대를 바라보며 시대적 사명을 성취해야 할, (새성전예로의 입전(入殿)을 앞두고 있는) 본교회는 매스콤전도의 어느 부분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해 보려 한다.

II. 매스콤전도의 양상

① 인쇄물

전도지, 간단한 설교집, 팸플렛, 신앙잡지나 서적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도 많이 사용해 왔으며 현재에도 보편화된 전도를 위한 대중전달 수단이다.

② 신문

기독교 계통의 신문, 일반신문에 전도를 위한 고정적인 광고, 크리스찬 필진이 기회있을 때마다 투고하여 게재된 기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폭넓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주님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진실한 인류사랑과 나라사랑과 거래사랑이 무엇인지 점점 깨닫게 해주셨고 또 사회를 진실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북한을 선교해 하는 것, 공산권을 비롯한 세계를 선교하는 일— 우리

사랑하는 충청교회의 목표—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참된 사랑의 실현이라는 것을 더욱 더 느끼게 하셨다.

나는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왜 주님은 나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물들어 영원한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는가. 생각 할 때마다 감사

와 희열을 느끼며 주님께서 힘주시면 아무리 적은 분야에서라도 주님 주신 참 소망과 사랑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네.

주 안에서

친우 박 상영으로 부터

③ 라디오방송

현재 한국 교회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특히 이 방법은 공간을 초월할 수 있으며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한 방법인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아세아 방송을 통하여 국내외로 전도하고 있으며 본 교회도 여기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 방법의 특이한 장점은 설교, 찬송, 간증, 연속극, 대담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폭넓은 복음전도의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

④ 카세트 테이프(Cassette Tape)

최근에 들어와서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전도방법이며 녹음기를 갖고 있다면 어떠한 여건속에서도 쉽게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군(軍)전도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⑤ 비디오 테이프(Video Tape)

고가의 기재 및 재료와 기술이 요구되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이므로 아직까지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시각, 청각적인 면으로 전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앞으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⑥ 영 화

생생하게 복음에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흥행을 추구하다 보면 복음이 그대로 나타나기 힘들고 투자가 적으면 졸작이 되기 쉬운 분야이다. 현재 복음 전도용으로 제작되어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화들이 대부분 호소력이 적은 졸작들인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많겠는데 그 중 가장 큰 원인을 과감한 투자의 결핍으로 들 수 있다. 이윤 추구가 앞서는 한 이 영역은 성공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 영화인들의 많은 등장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⑦ 텔레비전 방송

기독교 T.V 방송국을 세우고 텔레비전 채널의 번호를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듯이 T.V 방송을 통한 전도는 그 어느 방법보다도 효과적이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T.V 채널 하나가 국민의 내면적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한 것임을 상고해 볼 때 T.V 방송 전도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 전도 방법의 실현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매스컴을 통한 복음 전도의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저 방법보다 더욱 더 효과적이므로 이 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능한 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모든 방법을 동원한 전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방법들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사실이다.

III. 현 매스컴 전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첫째, 과감한 투자의 결핍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성 원리는 여러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다 보면 전달 매체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오기 쉽다. 현재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설교 테이프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는 매우 좋으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테이프의 질이 떨어져서 듣는 사람들에게 짜증이나 실망감을 주어 그 속에 담긴 복음에 그들이 가리워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양질의 테이프와 녹음 기재 사용, 보다 좋은 녹음실의 설비, 정밀한 기술 투입, 세련되고 우아한 외장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복음 전도용 테이프가 시중에 흘러 나오는 일반 테이프들 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야 할 것이다. 기독교 서적이거나 잡지등의 출판물이 시중의 일반 출판물보다 인쇄 상태, 지질(紙質), 재본이나 편집 수준, 디자인 같은 것이 다소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대상이 일반 출판물보다 한정되어 있어 판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제적인 난점이 있긴 하지만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신자들이 호감과 긍정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중의 일반 출판물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수준이 높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영리 추구 목적을 초월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단 카세트 테이프나 출판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매스컴 전도의 영역에서 세상의 어떤 대중 전달 매체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 갈 수 있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매스컴 전도의 성공 영역이 더욱 더 확대될 것이다.

둘째, 능력있는 전문요원의 양성이 시급하다.

얼마전 어느 T.V 방송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반을 만들고 있는 제작실을 카메라로

잡아 설명을 해준 프로그램이 있었다. 음반제작 기술이 세계 수준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그것을 뒷바침해주는 충분한 증빙들이 눈에 보였다. 고도의 정밀성을 갖고있는 컴퓨터 오디오 시스템(Computer Audio System), 치밀한 계획과 진행, 정상 기술의 갖고 있는 연주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수한 기재를 조작하여 작동시키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시키는 통제인(control man), 우수한 전문요원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매스컴 전도의 보다 나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선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이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탈피하여 여러가지 매스컴 전도매체를 연구, 개발하고 매스컴 전도 프로그램을 계획, 제작, 진행, 평가, 개선할 수 있는 능력있는 우수한 전문 요원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세째, 통제 본부(Control Center, Control Tower)가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를 조직 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조직 사회라 하면 계획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움직이는 사회를 말한다.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면 통제 본부는 각 하부조직에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과제를 준다. 그러면 이 하부조직들은 산하의 각 하부 조직들에게 자기 조직의 과제를 해결키 위한 분야별 과제를 주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말단 하부 조직들은

야가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된다. 방향-목표-에로의 전진이 없게 되기 서로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비생길 수도 있으며 많은 경비와 노

구체적이고 선명한 매스컴 전도 각 분야별 성격에 맞는 적절한 과 그 진행 과정을 감독, 점검하고 결과를 종합, 통제하여 시행하고, 있는 통제 본부가 반드시 있어야 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산만하고, 일관성이 없고 무계획적인 비유기적인 매스컴 전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세계선교, 민족복음화, 북한선교의 3대전도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스컴 전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점은 메꾸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적극적이고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새성전에 입전(入殿)하게 될 우리는 3대 전도의 비전의 폭을 더욱 더 넓혀 가야 할 시대적인 사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구의 급속한 팽창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 또한 비례하여 급증하고 있다. 낚시로 물고기를 잡기에는 너무나도 아득하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기에도 시간이 너무 짧다. 낚시와 그물을 만들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보다 더 효율적 방법을 개발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첨단 기술을 이룩한 과학의 발달을 사람을 낚는 어부인 우리가 주도(主導)하고 그 첨단의 기술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루터기

등잔 밑을 밝게

이브는 아들의 둘 잔치에 이웃 사람들을 초청했고 모두 먹고 간 후, 손님 접대로 인해 제들만 남았다.

손님들이 좋은 음식은 다 먹고 잔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 이브에게

야 나의 아들을 기억하고 평생 관심도해 줄 사람들이 형제만 남았오.

일을 때만 좋고 기뻐하며 축하하나, 그리 아들을 잊어버릴 것이요.

형제 자매들은 항상 우리의 곁에서 사랑을 베풀 사람들이니 참으로 대할 사람들이요.

를 서운케 하고서야 여짜 잘하는 일

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5:40)과 말씀하신 것이요.

는 항상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형제된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먼저 잘 대접하였다.



해외 선교지·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벨지움-김 성완선교사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하여 주심으로 어머니의 생명이 연장됨을 감사드리며 더욱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각 성경공부반(구약, 신약, 디모데반)이 은혜 중에 진행됨.

(2) 주일학교는 은혜 중에 발전됨.

(3) 4월 23일 부활주일에배및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침.

(4) 4월 10일 유 철환집사 장립식을 거행함(화란의 정 훈택목사님이 함께 수고하심)

(5) 집사서리로 5명을 임명.

(6) 운전면허 획득및 차량을 구입하심.

<기도제목>

(1) 선교사님과 가족의 영육간에 강건하심(어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2) 교회의 부흥과 양적 질적 면에서의 성장을 위하여

(3) 세우신 집사님과 제직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서독-육 호기선교사

<기도제목>

(1) 선교사님의 건강과 영력을 위하여

(2) 한인교회의 부흥과 발전, 독일인및 미군가족의 선교 확장을 위하여

○애굽-이 준교선교사

(1) 카이로 한인교회 성가대를 조직하고 영광돌림.

(2) 3월 9일~24일 춘계교인 전체 심방을 실시하였다.

<기도제목>

(1) 카이로 한인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애굽의 선교와 선교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3) 애굽의 농촌 학원 넘마주의 촌의 선교를 위하여

○미국-김 영휘목사(라성)

<기도제목>

(1) 목사님 가족의 영육간에 강건

(2) 사모님의 순산(6월경)을 위하여

(3) 목사님의 교회 봉사에 영력충만과 큰 열매를 위해서

(2) 4월 21일~23일까지 오지사역자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3) 오지사역에서 장년 40명, 어린이 5명이 결신, 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기도제목>

(1) 오지사역자 세미나를 위해

(2) 금년 중에 다섯곳의 개척지를 위한 스폰서 물색을 위하여

(3) 현지인 교회와의 협력및 강화를 위하여

(1) 전반기 성례식을 4월 1일에, 금식기도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칠레-유 재일선교사

- (1) 3월 27일 성가대를 조직함
- (2) 칠레 제1고아원을 방문하고 90명에게 스타킹 및 학용품을 전달하고 설교, 성경공부, 찬송을 가르침
- (3) 요한 칼빈신학교에 원주민 선교사 에드왈도 및 한국인 유 재근 김 영희에게 선교부 장학금으로 등록시킴

<기도제목>

- (1) 칠레의 경제가 심각하므로 어서 속히 경제가 회복되도록
- (2) 선교사역에 동역한 원주민 선교사를 위하여
- (3) 가족의 건강 및 원주민 선교사역을 위하여

○파라과이-김 재창선교사

- (1) 원주민 교역자 회의에 참석하시고 원주민 선교사업 계획을 발표함

- (2) 3월 27일 예수님 수난주간 특별기도회를 인도함

- (3) 3월중 등록 : 3명, 브라질 이민 : 2명, 개업 : 2명, 추모 : 2가정이 있었음

<기도제목>

- (1)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 (2) 교회의 부흥과 증축을 위하여
- (3) 경제사정의 회복을 위하여
- (4) 교포사회의 복음화와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일본-유 병세평신도선교사

배후기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사를 드립니다.

- (1) 광미교회에서 예배인도
- (2) 사모님께서 부인성경반 인도

- (3) 이권사님께서 일본에 징용왔던 한국인 이씨와 하이누족의 부인 사이에 혼혈인인 김씨와 환담, 한국 교회를 소개

<기도제목>

- (1)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과 하시는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하시길
- (2) 크고 작은 시험에서 승리하시길
- (3) 충현 성도님들께 배후기도를 부탁하심

○미국-라성충현교회

- (1) 6월 15일~19일까지 부흥회를 위해 온 교회가 준비를 함
- (2) 교회 구입을 위해 여러 곳을 물색 중이며 기도하고 있음
- (3) "승리의 그리스도"라는 부활절 칸타타로 특별 음악예배를 드림
- (4) 제1회 특별절야기도회를 가짐

<기도제목>

- (1) 말씀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 (2) 6월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
- (3) 예배당 구입을 위해

○미국-이 승근목사(뉴욕)

- (1) 힘든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전도한 50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심
- (2) 인근에 있는 성도교회(최 화정목사시무)와 4월에 합하여 예배 드림
- (3) 지난 2월 24일 따남을 순산, 이름은 이 주예

<기도제목>

- (1) 예배처소의 마련을 위하여
- (2) 차량 구입을 위하여
- (3) 사모님과 가족의 건강 및 학

업을 위하여

○본부소식

(1) 화란 기독교방송국의 헬레 방송국장이 당회장님과 본 교회를 취재하고 촬영, 화란 방송망을 통해서 5월 24일경 방영 예정임

(2) 헛튼 '83 선교대회 준비는 강연문과 함께 충현교회를 소개하는 소책자 및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발제강연을 하실 당회장님과 보고자이신 이 종운목사님 및 평가자 노 봉린박사님과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수행하실 본 선교회 회장 최 석주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람

(3) 충현세계선교회는 실행위원 스물여섯 분을 모시고 지난 4월 11일 오후 7시부터 12일 오전 6시까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세미나를 가졌는데 이 종운목사님의 개회설교, PYE선교사 부부의 '아세아 선교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선교사의 준비'라는 내용의 특강, 10월에 있을 세계 선교대회를 위한 토의등 유익한 시간이었다.

(4) 본교회 평신도 선교인으로 임명한 김 동표씨로부터 공한 접수

① 1월 20일~21일 : 리야드 청운교회 학교에서 동기 성경학교 개최

② 세운지 1년밖에 되지 않지만 성도가 많아져 증축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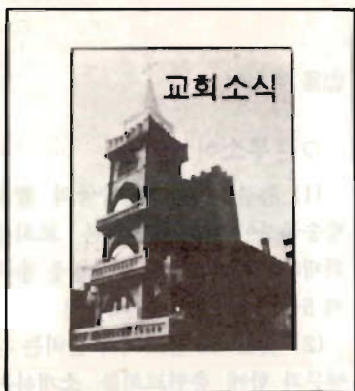
③ 모두가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일과에 피곤하고 지쳐 버리지만 보람을 갖고 수고 중임

- 해외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신 분 -

○ 강 영채권사 : 50,000원

○ 주 수겸선생 : 20,000원

감사합니다



□ 도서실 소식

중등부 교사인 이 미경선생께서 소장도서 217권을 본 도서실에 기증하셨다.

이 책들은 이 미경선생께서 대학교 재학시절에 틈틈이 모아두신 책들로서 그 종류가 다양하다. 분야별로 책들을 분류해 보면

경영 통계 무역학 16권
 법률 역사 지리 교양 13권
 정치 사회 행정 농업 16권
 인문과학 자연과학 39권
 신학 설교집 49권
 건강 레저 9권
 철학 문학 71권
 기술 4권

성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 제3대 안수집사회 조직

본 교회 제3대 장립집사들의 모임인 「안수집사회」가 지난 4월 23일 조직되었다.

기도회 및 친교를 목적으로 조직된 동안수집사회는 지난 4월 14일 안수받은 49명의 장립집사들이 회원이 되어 매월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원경조에도 협력케 된다.

동 모임은 매월 세째 토요일 오후에 당회실에서 갖기로 했으며, 회원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완료했다. 회장 송인홍집사, 총무 손경수집사, 회계 오정수집사.

초등부 : 정현희(여)

중등부 : 전근영(남)부정순(여)

이복숙(여)

직청부 : 정태식(남)전승훈(남)

장재부 : 장병기(남)

□ 인사이동

① 임명

유치부 : 양국석(남)

유년부 : 이천애(여)

초등부 : 이보형(여)길윤희(여)

이정애(여)

중등부 : 김대호(남)

고등부 : 이현경(여)이인철(남)

김 헌(남)이예경(남)

직청부 : 이명희(여)경명옥(여)

② 면

유치부 : 김영호(남)

유년부 : 조중덕(남)이기수(남)

□ 성가대 임명 및 전임

솔리스트

임명 : 백낙익 차숙희(제3성가대)

전임 : 박연숙(선교성가대)

성가대원

임명 : 김인준 이대준 이영남 박세효 성광재 정미숙 장정은 송복화(제3성가대)

퇴임 : 김정례 이명숙 김희자 이창희(제1성가대) 임길수 김신자곽숙단 추정희 김영희 이정애 여정숙 유명숙 정미옥 백영선 이성자 고제인 전진국(제3성가대)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간 총현은 성도 여러분의 교제의 광장이며 기쁜 소리를 나누는 벗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랑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간 총현은 문을 넓게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의 글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말씀의 생활화』를 위한 논단, 제언, 간증 및 수상 등과

2. 『성도의 교제』를 위한 시, 수필, 콩트, 일기 그리고 미담가화 등입니다.

3. 혹 원고가 많이 밀려서 늦게 실리는 수도 있고, 편집상 선별되어 실리는 수도 있어오니, 이 점은 양지하시고 주 안에서 많은 참여와 권고 바랍니다.

원고마감 : 매달 15일 이내

원고매수 : 200자 15매 이내

보 낼 곳 : 월간총현편집실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 : 24, 25)

4월의 새교우

● 1지구

삼실 1구역	박종순
아현 구역	추맹선
종곡 4구역	변인수
신림 구역	최준자
왕십리2구역	이상조
대현 구역	임명환
도선 1구역	박이순
● 4지구	
답십리1구역	박해정
도화 2구역	최명근
화양 2구역	이정숙

● 2지구

인현2-3구역	성문희
쌍문 4구역	이명환
장위 1구역	강영자
알재 구역	고선희
반동 2구역	양호순
개나리2구역	김도형
보문 1구역	김병호
역삼 2구역	김치웅
보문 1구역	최남순

● 3지구

쌍림 2구역	안옥자
● 5지구	
대치구역	김기환
한남 1구역	박종삼
한신13구역	최성희
신림 3구역	차숙희
발배 1구역	이병두
대방 구역	김태화

결 혼

- 노성식군과 김은희양 4월 14일
- 전학수군(목정구역)과 정정녀양(하왕구역) 4월 16일
- 오광옥양(자양구역) 4월 16일
- 이희전양(이춘명 김춘지집사딸) 4월 16일
- 윤태재군(화양구역)과 이옥화양 4월 23일

- 지점순서(불광구역) 4월 4일
- 정의화씨(이문구역 우기전장로 장인) 4월 23일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으신 사람은 세례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시간은 12시로, 새신자 부실에서 세례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별 세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피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찌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 16 : 3~8>

5월의 행사

◇교회

6일/전체철야기도회

◇전도위원회

6일/여전도회 월례회

8일/남전도회 월례회

직장전도회 임원회

22일/전도위원회 월례회

◇교육위원회

7일/청년부주최 경로회

5~7일/새가정부 세미나

22일/교육위원회 월례회

◇자산관리위원회

15일/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심방위원회

1일/정기제직회

8일/권사회 임원회

15일/심방위원회 월례회

22일/구역권찰회의

◇재정위원회

1일/재정위원회 월례회

◇건축위원회

22일/건축위원회 월례회

◇출판국

8일/월간 총현 5월호 발행

15일/출판국 월례회

월간총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총현 편집위원 □

위원장/윤명식

편집위원/

이성근 이세열

윤영탁 안석렬

김영구 조현명

김차생 우기전

이훈 정은표

오태용 이형수

편집후기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동분배라는 허울 좋은 속임수로 노동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고향을 깨내며, 민주주의는 자유경쟁에 의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나 연약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멸시하는 수가 있다.

폭력이란 총칼의 위협이나 힘에 의한 억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눅 10장30~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폭력은 여리고로 가는 사람을 강탈한 강도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간 율법사나 레위인도 칼만 안들었고 주먹만 안 흔들었지 간접적인 폭력을 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외면하는 자들에게 대해 경고하셨다(마 25: 41~46 참고).

상전 노릇만 할 것이 아니요, 귀족행세만 할 것이 아니요, 잘 믿는 척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내 곁에, 바로 내 밑(수하)에,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자가 아닌가 살펴 보아야겠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약 2: 19).

1983년 5월호

월간총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 5월호

제11권 제5호

통권 제110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3년 5월 5일 인쇄

1983년 5월 8일 발행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윤명식

주간/김영구

편집부장/문영화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1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36

전화/274-2171·2172





자녀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이를 꼭 안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 이야기를 해 주는 때
 조그마한 입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날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때
 인생에의 사랑과 하나님에의 사랑과
 가족들에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때
 아이들에게 의무의 아름다움과
 성경 공부하는 습관과
 가정 예배의 즐거움과
 기도의 평안함을 가르치는 때

나의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오늘이
 나의 날임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자녀들의 생애에는 중요치 않은 순간이 없음이니이다

내가 이것을 연기하지도 소홀히 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이것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 들이며
 당신의 은혜로 그 시간은 짧고
 바로 지금이 나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 않을 터이니깐요

Helen M. Young